

지역 매아리

정읍시, '태평가든' 축제 14일 태평로 공영주차장서

한여름 밤의 꿈같은 추억을 선사할 축제가 열린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돌아오는 샘고을(2017 도시재생공동체협의회)'이 주관하는 '태평가든(Taepyung Garden) 축제'가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태평로 내 공영 주차장(옛 국제탁구장)에서 열린다.

축제 주 무대는 공영 주차장이다. 이곳은 바질과 목화, 칸나 등의 화초를 활용해 도시정원으로 꾸며진다.

전야제 행사로 '태평가든 음악회'가 진행된다. 음악회에서는 해금 연주를 비롯한 국악과 함께 피아노와 첼로 연주가 펼쳐진다.

본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우선 나무장난감 나눔, 음악융합 프로그램 체험, 간식생활 체험과 수제 맥주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패트릭 아트 프리마켓, 맘프리마켓, 꾸러기 베품시장 등이 운영되며 행사 중간 중간 화초와 묘목 등의 나눔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최근 남원 사매 초등학교 등 2개 교에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해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은 해양경찰관이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가 바다안전상식, 물놀이 안전수칙, 연안안전사고 연안안전사고관 갯벌, 갯바위, 방파제, 무인도서 등에서 빠지거나, 추락, 표류, 고립, 수중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대응 요령,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심정 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습용 인형 및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체험형 교육형태로 진행되어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희망의 정읍 만들겠다”

유진섭 시장, 동신초교 학생 기자단 인터뷰

유진섭 시장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진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동신초등학교 학생 자율 동아리인 '동신기자단(지도교사 이복환)' 5명이 지난 9일 오후 2시께 시장실을 찾았다. 자신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인 '슬기로운 동신생활'에 게재할 유시장과의 인터뷰 진행을 위한 것. 이복환 지도교사는 "지역인물 소

개 코너에 민선 7기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유진섭 시장으로부터 시장의 역할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을 직접 설명 듣고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다"는 설명이다.



유진섭 시장이 동신초등학교 학생 자율 동아리인 '동신기자단'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에는 동신초등학교 6학년인 김혜원 기자, 김채원 기자, 이운주 기자, 신충훈 기자, 이준휘 기자가 참여했다.

학생기자들은 ▲자신(시장)에 대한 소개와 당선 소감(김혜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철학과 시장으로서의 덕목(김채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약 3가지와 옥정호 개발 문제(신충훈) ▲청소년을 위한 공약과 전통차와 진봉준거리 조성, 시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운주) ▲동신초등학교 주차장 해결 방안(이준휘) 등 기본질문에 서부터 공약사업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유 시장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3선 시의원을 하고 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정읍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시내권과 농촌이 함께 잘살게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들을 유치해서 자라는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수,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구슬땀 비상대책회의 · 피해현장 신속 방문... 긴급복구비 6000만원 배정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 열고 피해현장을 누비며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일 민선 7기 취임식을 취소하고 호우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피해현장을 발로 뛰며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원인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부서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피해의 근본원인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실무부서는 호우 피해 복구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하천 및 배수로 정비를 비롯한 25개소의 피해현장에 대한 긴급 복구비로 6000만 원을 읊면으로 재배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

정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권익현군수는 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배수관로나 하천 등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타 기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과 협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자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공사 첫 삽

정읍시, 21억원 투입... 내년 3월 1일 개관

정읍시가 11일 자암(苴菴) 박준승 선생(이하 자암) 기념관 건립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자암의 고택지(地) 인근인 산외면 평사리 일대 6,045㎡ 부지 내에 170㎡ 규모로 들어설 기념관은 전통 한옥형으로, 건립에는 모두 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자암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건축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 말까지 내부 전시공사를 마무리 한 후 3.1독립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내년 3월 1일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내부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자암의 발자취와 업적 관련 자료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은 윤봉길의사, 이봉창의사와 함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3의사 중 한 분인 구과 백정기

의사를 비롯 수많은 의병장과 애국선열을 배출한 충의의 고장이다"며 "기념관이 개관되면 애국충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이는 물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쳤던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암은 1866년 11월 임실군 청용면에서 태어나 1890년 동학에 입교했다. 1912년 장성대교구장 겸 전라도 순유위원장으로 임명되자 교정적 수행을 위해 정읍시 산외면 정당리 안계마을로 이주했다.

1919년에는 천도교 대표 15인과 함께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3.1일 만세삼창 후 일본경찰에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21년 만기 출소했다. 1927년 3월 23일 별세했고 복면 마장리 덕방산에 안장됐다가 1963년 현재의 수성동 성황산 중턱에 이장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총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최근 진드기매개감염병(SFTS,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예년에 비해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실과소와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보건소에 따르면 재난안전센터,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 관련부서 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긴급 대응 대책을 개최했고, 전 직원 영상회의를 통해 SFTS의 발생현황과 임상증상, 감염경로, 예방수칙을 공유하며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고창군보건소는 농한기인 2월부터 꾸준한 마을경로당, 생활개선회, 노인일자리, 노인대학, 농촌개발대학, 이장회의 등 주민 교육장을 순회하면서 진드기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과 특성, 역학적 특성,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교육을 통해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전북지역의 SFTS 발생 사망증가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적극 나서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장에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주민행태개선과 환경정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고·최선의 예방법이다"며 "잘 입자, 잘 씻자, 잘 치료하자는 구호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꼼꼼한 방역활동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동진면, 제전마을 현장 이장회의 진행

부안군 동진면이 이례적으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아닌 제전마을 모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이장회의를 가졌다.

11일 동진면 이장 협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가끔씩 마을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동진면 46개 마을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서로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허원근 동진 이장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방적인 행정의 전달사항 청취가 아닌, 다른 마을은 무엇을 어떻게 기우고 주민들끼리는 어떻게 화합하며 소통하는지를 서로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동진면 행정의 일선지도자로서 주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1병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EL : 063-584-9960
www.gansanwine.com